

OLED 시장 회복세 전환 뚜렷

디스플레이뱅크, 2005년 상반기 2400만대 이상 ... PM 99%

다소 주춤했던 OLED(유기발광 다이오드)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하량에서는 타이완이 1위이지만 매출액은 한국이 타이완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는 8월18일 발표한 <2005년 2/4분기 OLED 시장동향 및 전망> 보고서에 따르면, 2004년 하반기 PM(수동형) OLED 시장의 일시적 위축세와 맞물려 일부기업들이 PM OLED 사업 진출을 포기했으나 다소 주춤했던 OLED 시장이 2/4분기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

2005년 상반기 세계 OLED 출하량은 2400만대 이상으로 2004년 하반기의 1500만대 대비 50% 이상 증가했고, 반기별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던 2004년 상반기의 2000만대 수준을 상회했다.

전체 OLED 출하량 가운데 99%는 PM이다.

출하량 기준으로는 타이완이 1000만대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 850만대, 일본 320만대, 기타 170만대 순이다.

그러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큰 차이로 한국이 타이완을 앞지르며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삼성SDI와 타이완의 라이트 디스플레이가 양강체제를 이루고 있고 파이오니어, 유니비전, LG전자, 필립스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.

OLED 시장은 하반기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 3/4분기에 분기별 최고 출하량을 기록하는 등 2005년 전체 출하량이 6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디스플레이뱅크는 2006년 출하량이 2004년의 3배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8/19>